



인쇄자용
안내서

나만의 백자 모빌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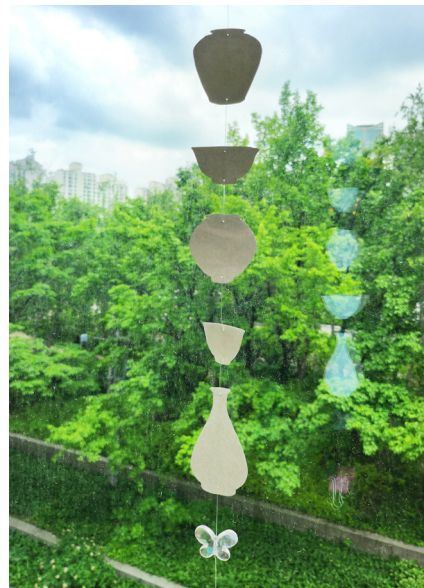
전시실에서 보았던 백자의 아름다운 곡선을
떠올리며 나만의 모빌을 만들어보세요.

[만드는 방법]

준비물: 투명줄 0.7mm, 가위, 압정, 비즈

※ '감상활동지(인쇄용)'은 준비물을 직접 준비해 주세요.

1. 백자 모양을 가위로 오려주세요.
2. 어떤 순서대로 백자 모양을 배치할지 생각해요.
3. 백자 모양에 표시된 구멍을 압정으로 뚫어주세요.
4. 줄 맨 위에 모빌을 걸 수 있는 고리를 만들어요.
5. 뒷구멍과 아랫구멍에 줄을 통과시켜서 백자 모양을
연결해 간격을 조절해요.
6. 아래에 달고 싶은 비즈를 끼우고 매듭을 지어요.
7. 완성된 모빌을 원하는 곳에 걸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백자마다 색이 조금씩 달라 보여요.

모빌을 바라보며 오늘 보았던 다양한 백자를
떠올려 보세요!

친환경 종이와 표기름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새하얀 아름다운 백자 이야기

백자란

흰색 흙으로 빚은 그릇에

투명한 유약을 입혀 1300도 이상의
높은 온도에서 구워낸 도자기예요.
아무런 무늬나 장식이 없는 백자를
순백자라고 해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백자는
매우 희고 단단해요.



조선 왕실의 그릇이 된 백자

조선 왕실은 백자가 청렴하고 검소하다고 생각해 왕실에서 사용하는 그릇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우수한 백자를 만들기 위해 나라에서 운영하는 도자기 제작소를 세웠어요.
이곳에서 생산한 품질 좋은 백자 바닥에는 ‘天(천), 地(지), 玄(현), 黃(황)’ 등을 새긴 표시가 있어요.

그릇에 ‘天(천), 地(지), 玄(현), 黃(황)’을 왜 새겨넣었을까요?



자연을 닮은 달항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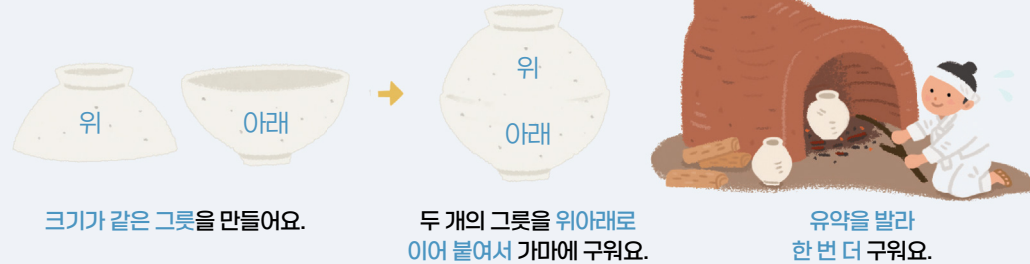
달항아리는 높이 40cm가 넘는 대형 항아리예요.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어요.
풍만하고 둥근 생김새가 보름달 같아서 1950년대에
‘달항아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자세히 보니 조금 찌그러져 있네요. 왜 그럴까요?



더 알아보아요!

달항아리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다양한 생김새의 백자

조선시대 도자기는 생김새에 따라
병, 사발(발), 항아리 등 부르는 이름이 달랐어요.

[병]

백자 병

조선 15~16세기
높이 34cm

좁고 기다란 목에
둥근 몸체를 가진 병이에요.
병은 물이나 술 등을 담는
그릇이에요.



[사발(발)]

‘天(천), 地(지), 玄(현), 黃(황)’을 새긴
백자 발

조선 15~16세기
높이 11.3cm(왼쪽)
국보 | 이견희 기증

입이 살짝 밖으로 벌어지고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순백자예요. 발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편한
그릇이에요.



[항아리]

백자 항아리
조선 15~16세기
높이 31.6cm

어깨가 둥글게 부푼 항아리
예요. 맑고 깨끗한 흰색으로
왕실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해요.

